

КСІ

# 한글의 로마자표기법과 한글 정보자원 목록업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 Romanization Systems and Cataloging Korean Information Resources

오 경 목(Kyung-Mook Oh)\*\*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한국서지목록 실태 및 문제점      |
| II. 한글로마자표기법 변천과정        | 1. 기본 기술(description) 방식 |
| III. 주요 표기방식의 내용 분석      | 2. 문제점 논의                |
| 1. McCune-Reischauer 표기법 | V. 결 론                   |
| 2.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                          |

### 초 록

현재 정부의 표준로마자 표기 방식인 문화관광부 (2000)표기법은 도서관사회에서 대부분 이용자들은 아직 익숙치 못한 방식인 반면에, 국제적으로 학계 및 도서관이용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표기는 McCune-Reischauer 표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로마자표준이 전환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 도서관계에 그동안 변환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논의되었어도 이를 구체화시키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새로운 표기방식이 학계 및 정보서비스 업계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표기법의 변천과정과 각 표기법의 특징, 한국서지목록작성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주제어: 한국학(어)자료 목록, 국어(한글)의 로마자표기법, 매칸-라이샤워 방식, 로마자표기법

### ABSTRACT

Over sixty Korean romanization systems have introduced in the course of history since 1800, but not most of them have experienced the test of proper duration. At present two major systems are introduced and focused in the bibliographic fields: McCune-Reischauer system and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system(2000). Few libraries may be driven to the new romanization schemes, however library users require a practical and easy-to-use Korean romanization system for searching the Korean items. From the view of bibliographic control for Korean information resources,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s for converting romanization systems have been shown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Key Words: Cataloging Korean Materials, Bibliographic Control, Korean Romanization Systems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5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kmoh@sookmyung.ac.kr)

• 접수일: 2005년 11월 15일 • 최초심사일: 2005년 12월 3일 • 최종심사일: 2005년 12월 5일

## I. 서론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한글로마자 방식이 등장하였지만 이 체제들은 거의 모두가 충실한 테스트를 거치지 못하였다. 현재 미국의회도서관과 북미도서관계는 로마자표준으로 McCune-Reischauer 표기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McCune-Reischauer 식 표기는 국제연합, 미국 연방정부 각 부처, 그리고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을 포함하여 한국 이외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한글정보원의 로마자표기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때 국제표준기구, ISO는 남북한 로마자 방식을 단일화시켜보자고 하였으나 남북한의 합의안이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sup>1)</sup> 정보이용자의 편의와 도서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검색을 위해 보다 조직화되고, 쉽게 배우고 접근할 수 있는 표준 국어로마자 표기방식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해외 한국관련 자료의 목록 표기 방법이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어로마자 표기방식 중에 McCune-Reischauer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2000년 7월 7일자로 문화관광부가 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0-8호)한 “새로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국내 도서관계가 이를 성급히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sup>2)</sup> 이 보도에 의하면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으로 번자한 KORMARC 데이터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이 미국의회도서관,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등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파장이 국내·외 도서관 현장에서 목록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목록 작성 업무 및 유지 그리고 일반 이용자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논점이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의 구조를 분석하였고, 두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평가하였고, 그들의 장단점을 각각 논의하였다. 목록연구자의 입장에서 ‘새 방식’ 뿐 아니라 ‘종래의 McCune-Reischauer 방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느 한 방식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도 하지 않았고, 두 가지 방식에서의 문제점과, 또한 근본적으로는 한글체제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밀 분석하고 이 문제점을 문헌정보학과와 유관 정보업계 입장에서도 조명해 보았다. 장단점에 대하여 본래 시스템의 구조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운영 상에 나타나는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서지통정을 위한 목록기술업무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목록기술 상의 변화는 한글로마자표기법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서관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정일, “로마자표기법의 남북통일 방안,” In 우리어문학회 편, 남북한어문규범과 그 통일방안(서울: 국학자료원 2003).

2) 박일심, “한인사서들과의 소중한 만남,” 도서관계, Vol.131(2005, 4), pp.19-21.

## II. 한글로마자표기법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해방 후 대표적인 로마자 표기방식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다가 1959년 국어심의회 외래어 분과위원회가 처음으로 '한글의 로마표기법'을 연구하고 제정함에 따라 그해 담당 부서인 문교부가 이를 공포하여 원칙화 하였다.<sup>3)</sup> 이후 현재까지 한글로마자표기법은 국제적으로 문화, 경제 및 정치적 교류가 가속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이 개최되면서 로마자표기방식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통일된 방식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목록 편성자의 입장에서, 특히 해외에서의 한국관련 자료의 표기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점에 그간 로마자표기법의 변천역사의 이해는 목록표기 방식의 변천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기법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1. 1800년대 전기( ~ 1870년대까지)

한글의 로마자표기는 서양인들이 본인들이 업무 수행 상의 필요에 따라 한글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대응하여 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한글의 로마자표기를 시도한 이는 1832년(순조 32) 독일인인사 F. V. Siebold(1796~1866)가 당시 일본정부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제작한 표기법과 1835년 영국 선교사인 W.H. Medhurst 가 출간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비교어휘집”에서 밝힌 표기방식이다. 이후 1870년까지 외국인이 국내에 공식적으로 입국할 수 없었던 시기에 해외에서 시도된 대표적 표기방식은 문헌 상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sup>4)</sup>

#### 가. 자음표기

	ㄱ	ㅋ	ㆁ	ㄷ	ㅌ	ㅍ	ㅑ	ㅓ	ㅕ	ㅗ	ㅛ
F. V. Siebold(1832)	k	k'	/	t	t'	/	p	p'	/	ts	ts'
W. H. Medhurst(1835)	k	k'h	/	t	th	/	p	ph	/	ts	tch
C. Dallet(1874)	k	kh	/	t	th	/	p	ph	/	ts	tch
J. Ross(1877)	g	k	/	d	t	/	b	p	/	ds	ts

3) 손길영,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매콘라이사위 표기법의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1998.12), pp.151-164.

4) 도형수, “한글로마자 표기법의 변천과정,” 계명대학교 언어연구소 언어논총, 12집(1994.12), pp.159-196.

나. 모음표기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C. Dallet(1874)	a	eu,o	ia	ou	eu	l	e e'	oi oe'
J. Ross(1877)	a	u	yu	oo	u	l	/ /	wa /

(“/” 표시된 것은 문헌상 확인되지 못한 것이며 모음은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2가지만 제시함)  
 이 시기에는 ㅓ, ㅕ, ㅠ 등의 된소리를 표기하는 방법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Medhurst는 그 당시의 한글 된소리 표기를 sk, st, sp로 각각 표기하였다.

2. 1800년대 후기(1880년 ~ 1910년, 한일합방 전)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허용된 개방기에 국내에서 직접 한글의 사용을 통하여 로마자표기체제를 만들었다. 표기법이 만들어진 연대에 따라 주요 표기방식을 자음과 모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음표기 방식

	ㄱ	ㅋ	ㆁ	ㄷ	ㅌ	ㄷ	ㅌ	ㅍ	ㅑ	ㅑ	ㅑ
J. Ross(1882)	g	k	g'	d	t	d'	b	b	p'	ds	ch /
J. Scott(1887)	k	k'	kk	/	/	/	p	p'	pp	ch	ch' ch
H.G.Underwood(1890)	/	hk	/	/	ht	/	hp	/	/	/	tj(ch) /
J.S. Gale(1897)	k	k	g	/	/	/	p	p'	b	ch	ch' j

나. 모음표기 방식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J. Scott(1887)	e	ye	ou	eu	i	ai	ei	oa oi
H.G. Underwood(1889)	o	yo	u	yu	i	/	/	/ /
J.S. Gale(1897)	U	yU	u	eu	i	/	/	wa /

3. 일제 통치기

이 시기에는 서구인 뿐 만 아니라 일본학자들도 한글의 로마자 대조표 등을 만들어 소개하였는데 대체로 Siebold(1832년) 계열과 Dallet(1874년) 계열에 근거한 발음전사안이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표기원칙(McCune-Reischauer 방식 등)들은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들의 다양한 한글표기에 대하여 조선어학회 차원의 표기법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가. 정인섭식(1935) 표기법

이 표기 방식은 한국인이 작성한 최초의 로마자표기방식으로 당시 조선어학회가 외래어 한글표기법, 일본어 한글표기법, 그리고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제정 사업의 일환으로 표기법 초안을 1936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국제언어학자대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때 정인섭이 대표로 참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희승, 이극로가 기초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대체로 자음은 Ross 방식을 취했으나, 모음에서는 ㅏ(o'), ㅑ(u'), ㅓ(e') 같은 첨가기호를 사용하였다. 그 체제는 다음과 같다.<sup>5)</sup>

〈표 1〉 정인섭식 표기법의 자모음 대응표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ㄸ	ㅂ	ㅍ	ㅃ	ㅈ	ㅊ	ㅆ	ㅅ	ㅈ	ㅇ	ㅇ	ㄴ	ㄹ	ㅁ		
	g	k	gg	d	t	dd	b	p	bb	z	tch	zz	s	ss	h	ng	n	r/l	m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a	o'	o	u	u'	i	e'	e	oe	ya	yo'	yo	yu	ye'	ye	wa	wo'	wi	we'	we	u'i

\* 받침인 경우 : ㅋ(g), ㆁ(g), ㅌ(d), ㅍ(b), ㅅ(d), ㅆ(d), ㅊ(d)

나. McCune-Reischauer(1939) 식 표기법

이 표기법은 당시 Harvard 대학의 지리학도인 George McCune(후에 버클리대 교수 역임)과 정치학도인 Edwin O. Reischauer(후에 주일대사 역임)가 한국관련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통일체제가 없어 통일표기 방안을 찾고자 한국의 언어학자, 음성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학술용으로 학자들이 사용할만한 표기법을 1937년 고안하였다. 두 사람 모두 선교사의 아들로서, McCune은 서울에서 태어나 연희전문(현 연세대학교)의 최현배 선생과 정인섭 선생에게 한글을 익혔고, Reischauer는 동경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동경대, 북경대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언어를 익힌 바 있다.

이 표기법은 그간에 만들어진 자모음 표기방식을 응용하여 만든 것으로 음운적표기(phonetic writing)를 원칙으로 하는, 발음을 중시하는 원음주의 우선표기의 전사법(轉寫法) 방식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일찍이 미국 War Department에서 채택, 국무성 발행의 지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미군정시대, 한국전쟁 중 각종 공식문서에서 널리 사용되어 공식화되었고, 다른 외국기관들도 이 방식을 따르게 되면서 로마자 표기의 표준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표 2〉 McCune-Reischauer(1939)표기법의 자모음 대응표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ㄸ	ㅂ	ㅍ	ㅃ	ㅈ	ㅊ	ㅆ	ㅅ	ㅈ	ㅇ	ㅇ	ㄴ	ㄹ	ㅁ		
	k	k'	kk	t	t'	tt	p	p'	pp	ch	ch'	tch	s	ss	h	ng	n	r/l	m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a	o	o	u	u	i	ae	e	oe	ya	yō	yo	yu	yae	ye	wa	wō	wi	wae	we	ū

\* 유성음인 경우 : ㄱ(g), ㄷ(d), ㅂ(b), ㅆ(j)

\* 받침인 경우 : ㄱ(k), ㄷ(t), ㅂ(p), ㅅ(t), ㅆ(t), ㅎ(t)

5) Ibid., p.168.

따라서 영미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학술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도서관에서는 이를 공식 기술안으로 채택하여 목록작성 등 각종 서지작업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식의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3장에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 다. 조선어학회(1940) 표기법

일제치하인 1940년 당시 조선어학회가 외래어표기법통일안 발표 시 ‘조선어음 라마자표기법’으로 소개되었는데 일제하라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다가, 해방 후 한 동안 교통부에서 모든 기차정거장의 안내 간판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후에 McCune-Reischauer 방식으로 바뀐 바가 있다. 이 안은 주로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1935년에 발표된 정인섭의 표기법을 모체로 음소(phonetic)표기와 형태음소(morphonetic) 표기를 병용한 것으로 중간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해방이후 문교부 표기법

#### 가. 1948년 표기법

해방 후에도 조선어학회(1940) 표기법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문교부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산하 언어과학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결정한 것이 1948년 소개된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법’이었다. 자음은 Dallet(1874)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유성음일 때에는 ㄱ, ㄷ, ㅂ를 각각 g, d, b로 표기하였다. ㅅ과 ㅈ은 각각(ch, j, t)와 (chh, t, ch') 등과 같이 세 가지씩을 허용하고 모음은 McCune-Reischauer 방식과 같이 ㅑ, ㅓ를 o, u로 사용하였는데, 이 안은 한국학자 17명과 외국학자 5명이 참가하여 제정하였다.

#### 나. 1959년 표기법

1948년 문교부 표기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한글의 로마자표기가 사용되므로 이를 통일시키고자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1959년 2월에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김선기, 박술음, 허웅, 주요섭, 백낙준 등이 참여하여 국어심의위원회 외래어표기 분과 위원회의 노력에 의해 성안되었다. 본 표기법은 기본원칙으로 ① 한글의 현행표기법을 로마자식으로 표기한다 ②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③ 1음운 1기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자음에서는 2가지 기호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두었다. 이 표기법은 Ross(1877) 계열에 근거하여 자음(ㄱ, ㄷ, ㅂ, ㅅ, ㅈ, ㅊ)을 음소표기함으로써, Siebold(1832) 계열에 근거한 McCune-Reischauer 표기법과 대립이 되어 이후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 1984년 표기법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게임을 앞두고도 단일화된 표기법의 사용이 어렵게 되자 보다 국제적인 표기가 사용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시점에 이르면서 새롭게 소개된 표기법이다. 정자법(正字法)을 지향하려던 1959년 표기법이 원음주의를 지향하는 전사법(傳寫法)으로 바뀌어 각종 정부간행물, 전국의 도로표지판 등이 이 표기법에 맞도록 표기되었다. 따라서 McCune-Reischauer 표기법이 통일표기법으로 채택되어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체육행사에서 다시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5. 전환기(1986-1990) 및 현재

이 시기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ISO의 요청에 따른 남북 통일안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1984년 문교부개정안이 성안되기까지는 로마자 표기법 제정 시 중요시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으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업진흥청을 주관으로 하여 ISO에 제출할 표기법을 만들게 되었다. 이는 ISO로부터 한글의 로마자표기법에 대한 초안을 남북한이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남북한 통일안 협상이 진행(1987년 모스크바 1차 회의부터 1995년 5차 파리회의를 거쳤다) 되면서 초기에는 협상의 가능성이 없진 않았으나 남북은 표기법 자체의 본질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적 접근이 시도되면서 지금까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6년 남북한은 일차적으로 합의안을(초안) 도출하여 ISO에 문서번호 TR1941로 등록하였으나, 최종합의 도출기간인 2002년 12월을 경과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기된 상태이다.<sup>6)</sup> 남한의 안은 1959년 문교부안을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게 되었고, 북한은 1956년 과학원 조선어및조선문학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에 근거하여 로마자표기법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는 대체로 McCune-Reischauer 표기법 방식을 따른 1984년의 문교부 표기법과 유사하다.

이 때 소개된 초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표 3> 문교부안(1959)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ㄸ	ㅃ	ㅍ	ㅍ	ㅈ	ㅊ	ㅆ	ㅈ	ㅊ	ㅇ	ㅇ	ㄴ	ㄹ	ㅁ		
	g	k	gg	d	t	dd	b	p	bb	j	ch	jj	s	ss	h	ng	n	r	m		
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ㅝ	ㅞ	ㅟ	ㅘ	ㅙ	ㅚ	ㅜ	ㅝ	ㅞ	ㅟ
	a	eo	o	u	eu	i	ae	e	oe	ya	yeo	yo	yu	yae	ye	wa	weo	wi	wae	we	eui

6) 정경일, 전계서.

7) 도형수, 전계논문, pp.159-196.



〈표 4〉 공진청초안(1986)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ㄸ	ㅂ	ㅍ	ㅃ	ㅈ	ㅊ	ㅆ	ㅅ	ㅈ	ㅎ	ㅇ	ㄴ	ㄹ	ㅁ	
	g	k	gg	d	t	dd	b	p	bb	j	c	jj	s	ss	h	ng	n	r	m	
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ㅠ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a	eo	o	u	eu	i	ae	e	oe	ya	yeo	yo	yu	yae	ye	wa	weo	wi	wae	we

〈표 5〉 북한안(1986)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ㄸ	ㅂ	ㅍ	ㅃ	ㅈ	ㅊ	ㅆ	ㅅ	ㅈ	ㅎ	ㅇ	ㄴ	ㄹ	ㅁ	
	k	kh	kk	t	th	tt	p	ph	pp	c	ch	cc	s	ss	h	ng	n	r	m	
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ㅠ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a	eo	o	u	eu	i	ai	e	oi	ya	yeo	yo	yu	yai	ye	wa	weo	wi	wai	we

ISO의 압력과 또 한편으로는 정보화의 영향으로 한글의 표준화를 위하여 1997년 당시 문화체육부가 산하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을 통하여 국어학, 불어학, 중국어학, 컴퓨터관련 전문가 등 11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1997년 5월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0년 7월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문화부장관 명의로 고시하게 되었다. 본 표기법 규정에 따라 2002년 2월 28일까지 교과서 등 출판물에서 이를 따르도록 하였고(부칙 3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 등 표지판을 이 표기법에 따라 바꾸도록(부칙 2조) 하였다.

### Ⅲ. 주요 표기방식의 내용 분석

#### 1. McCune - Reischauer 표기법

한국어의 로마자표기를 위한 McCune-Reischauer 표기법은 1939년 Royal Asiatic Society의 한국지부(Korean Branch)에서 발간한 이후 서구의 학생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2장의 한글로마자표기법 변천과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자들은 이 표기법은 “과학적인 정확성과 실제적인 단순성 사이의 타협”으로서 음성학적이거나 기교적인 언어학연구에는 부적당하며 모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채택될 수 없을 런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실로 모든 목적을 충족시킬 만큼 한국어를 완전한 로마자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는 국어의 로마자표기가 한글로 적을 때와 다른 방법으로 적는 “소리나는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표기법의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sup>8)</sup>

8) 리재철, “한글 로마자화의 서지목록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협월보, Vol.17, No 4(1976.5).

- 이 표기법은 한글의 낱말이 아니라 발음을 표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는 각 글자를 로마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발음에 있어서 발음 편의상의 변화를 완전히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 한글은 로마자보다 더 많은 모음을 사용하므로써 또 다른 복잡성을 야기시키게 되어 제한적으로(o, u에서 반달표시 첨가로 ɨ, ɯ 표기 가능) 발음부호(첨가기호)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 한글 자음 중 일부는 한 낱말이나 구에 있어서 위치에 따라 둘이나 그 이상의 더 많은 소리값을 갖는다. 이때 각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게 된다. 발음상 주어진 소리에 따라 ㄹ은 r, l 또는 n으로 바뀌고, ㄱ은 k, g 또는 ng로 변환된다.
- 강한 기음(氣音, aspirated)인 자음들은 아포스트로피의 첨가로 표시된다. 예를들면 칭찬은 ch'ingch'an으로 표기되는데, 아포스트로피는 단음인 ng(한글의 ㅇ)이 아닐 때 n과 g를 분리할 때 사용된다(예: 한국 han'guk).
- 하이픈은 낱말 안에 부속되는 구분을 위해 남겨둔다(예: 덕수궁 Töksu-gung ; 해인사 Haein-sa).
- 漢字의 음절과 고유명칭들은 하이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 위의 제안에 따라 표기된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한글운동은 연산군조에 이르러 큰 액운을 당하였다.  
-> Han'gul undongŭn Yönsan-gun chöe irürö kŭn aegunŭl tanghayötta

특히 자음끼리 상호 배합이 이루어질 때에는 국어의 표준 발음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규칙 변화가 이루어진다.

- ① ㄹ 은 ㅎ 앞에서 r 로 쓰인다(일형 Irhyöng).
- ② ㄹ 은 ㄱ, ㄴ, ㅁ, ㅂ, ㅇ 뒤에서 n으로 쓰여진다(남로당 namno-dang).
- ③ ㄴ 은 ㄹ 앞과 뒤에서 l 로 쓰인다(한류 halyu).
- ④ ㄱ, ㄷ, ㅂ 은 ㄴ, ㄹ, ㅁ 앞에서 ng, n, m 으로 쓰인다(국난 kungnan).
- ⑤ ㄱ ㄷ ㅂ ㅈ 은 ㄴ ㅁ ㅇ 뒤에서 g d b j로 쓰이며 또 ㅂ은 ㄹ 뒤에서 g, b로 쓰인다(찐지 chönji ; 갈비 kalbi).

##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

2000년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은 국어의 표준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글 단어는 글자와 발음이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표준발음법'에 따라 적는 표음법(表音法)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표준발음법

은 외국인에게 편리하지만 내국인에게는 불편의 소지가 있다. 신림은 실림, 종로는 종노, 청량리는 청냥니로 발음하게 된다. 로마자는 a부터 z 까지 26개 글자이고 이중 모음은 a, e, i, o, u 다섯 글자이며, 한글은 단모음 10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 이중모음 11개(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로 모음 21개, 자음 19개(파열음 ㄱ, ㅋ, ㆁ, ㄷ, ㅌ, ㅍ, ㅈ, ㅊ, ㅍ, ㅍ; 파찰음 ㅆ, ㅆ, ㅅ;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ㄴ, ㅁ, ㅇ; 유음 ㄹ)이다. 따라서 로마자의 모음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종전에는 ö, ü를 사용하여 ‘어’와 ‘으’를 표현하였으나 2000년 개정표기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표기법 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이 제시되었다.

- 음운상 변화가 있는 경우, 즉 자음끼리 동화작용을 일으킬 때, 백마는 [백마], 신문로는 [신문노], 왕십리는 [왕십니] 신라는 [실라]로 발음되어 각각 Baengma, Sinmunno, Wangsimni, Silla로 표기한다.
- “ㄴ, ㄹ 이 덧나는 경우” 학여울은 [항녀울], 알약은 [알략]으로 각각 Hangnyeoul, allyak으로 바뀌게 되며,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해돋이, 같이, 맞히다 는 [해도지], [가치], [마치다]로 발음되어 각각 haedoji, gachi, machida 가 된다.
- ‘ㄱ ㄷ ㅂ ㅈ’ 가 ㅎ 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경우 ‘좋고, 놓다, 잡혀, 낱지’ 는 [조코], [노타], [자퍼], [나치]로 되어 각각 joko, nota, japye o, nachi 가 된다.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 이 따를 때에는 ㅎ 을 밝혀 묵호는 Mukho, 집현전은 Jiphyeonjeon 으로 적는다
-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해운대 중앙 세운’은 Jung-ang, Hae-undae, Se-un 과 같이 음절사이에 붙임표( - )의 사용을 허락한다.
-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쓰는데 이름은 붙여 쓰는 것(Song Nari; Min Yongha)을 원칙으로하고 음절사이에 붙임표의 사용을 허용하는데 인명의 경우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한복남, 흥빛나는 각각 Han Boknam, Hong Bitna 와 같이 표기한다 .
- 행정구역단위로서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 가’ 등은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인명과 마찬가지로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표기화하지 않는다. 즉 Chungcheongbuk-do, Chungju-si, Sotae-myeon, Cheongpa-dong 2-ga, Yangcheon-gu Mok-dong 과 같다
-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Namsan, Songnisan, Dokdo, Gyeongbokgung, Geungnakjeon, Namhansanseong, Bulguksa, Hwarangdae, Dongnimmun, Hyeonchungsa.
- 학술연구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대상으로 옮겨적는데 ‘ㄱ ㄷ ㅂ ㄹ’ 은 ‘g d b l’ 로만 적어준다. 이때 음가가 없는 o 은 붙임표로 표기하

되 어두에서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기타 分節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붙임표 ( - )를 쓰도록 하였다. ‘집, 밖, 독립, 물엿, 굳이, 좋다, 없었습니다’는 각각 ‘jip, bakk, doglib, mul-jeos, gud-i, johda, eobs-eoss-seubnida’이 된다 인명 단체명 회사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상의 내용에는 현재 목록업계에서 채택되는 국제적 목록규칙인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의 규정과 상이한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목록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면 다음 4장의 내용과 같다.

## Ⅳ. 한국서지목록 실태 및 문제점

### 1. 기본 기술(description) 방식

우리나라의 목록자들에게는 그동안 한글의 로마자 문제는 그리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한국내 독자를 위한 한국어자료에 대한 저록은 한글로 표기하였고, 서양어자료의 저록은 그 자료에 쓰인 로마자로 직접 기입하여 로마자의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이원적 자모순 배열법을 적용하여 번자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sup>9)</sup> 한글과 로마자가 배열어 문자로 병용되어 보통 한글의 자모음이 먼저 검색되고 로마자가 다음에 검색되도록 순위를 정하여왔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한국의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통용성이 넓은 로마자로 표기해서 나타내어 왔다. 한국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는 1668년에 공표된 하멜(Hendrick Hamel)의 표류기에 보이지만 이는 임기응변적 표기로 체계적인 한글의 로마자표기는 아니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격적인 로마자 시도는 1832년 독일인 Siebold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겠다. 그 후 외국인이 발표한 방안만도 약 50종이 넘고 한국인이 만든 것을 합치면 약 60여종이 넘는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것이 McCune-Reischauer 표기법과 새로운 문화관광부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자료를 서지 작성할 때 한글의 로마자화 시도는 19세기말 모리스 쿠랑의 조선서지에서 나타난 것이 효시로 알려져 있는데 도서관목록업무에 있어서는 1926년 설립된 경성제대도서관에서 서명의 올림말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 처음인데 이때는 일본인 인 오구라식 표기법을 수정한 독자적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로마자를 병기한 목록이 한동안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로마자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민간에서 출간되는 영어출판물은 한국어 고유명사 표기에 있어 정부방식보다는 McCune-Reischauer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9) 상계서.

등 전통적인 한국학 연구기관에서 편간된 ‘한국학 논저서지’(Bibliography of Korean Studies) 등에서도 McCune-Reischauer 방식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로마자로 목록업무를 할 때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방식 간 상이한 점을 비교한 내용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를 토대로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기방식에 큰 차이가 나타나면 검색 접근점(Access Point)이 달라지게 되므로 표기법의 전환문제는 목록계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 ‘ㄱ ㄷ ㅂ’를 모음 앞에서 ‘g d b j’로 통일함에 따라 표기가 다르게 되었다. 다만 자음 앞이나 단어 끝에서는 ‘ㄱ ㄷ ㅂ’는 ‘k t p’로 번자된다.

	M-R 식	문화부식
광주	Kwangju	Gwangju
김포	Kimp'o	Gimpo
김치	kimch'i	gimchi
독립	Tongnib	Doglib
거북선	Köbüksön	Geobukseon
학문	Hangmun	Hangmun

- ㄴ, ㅡ 는 로마자 외의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각각 ö, ü에서 eo, eu로 바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또한 ㅋ ㅌ ㅍ ㅊ 는 k' t' p' ch'에서 k t p ch로 바뀌어 과일음에서( ' 어깨점) 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M-R 식	문화부식
정선	Chöngsün	Jeongseon
음성	Ŭmsöng	Eumseong
여의도	Youïdo	Yeouido
특파원	T'ükp'awön	Teokpaweon
태평로	T'aep'yöngno	Taepyeongno

- ㅅ 은 s 로 통일되면서 상이한 표기를 하게 되었다.

	M-R 식	문화부식
신설동	Shinsöl-dong	Sinseol-dong

신세계	Shinsegye	Sinsegye
신식	Shinshik	Sinsik
신혼	Shinhon	Sinhon
세계	Segye	Segye
상가	Sangga	Sangga

- 사람이름은 보통 두 글자인데 각 음절사이에 일어나는 음운변화를 반영하지 않게 되었다.

	M-R 식	문화부식
홍석민	Hong Sŏngmin[성민]	Hong Seokmin
이만열	Yi Mannyŏl[만열]	Yi Manyeol
김복남	Kim Pongnam[봉남]	Gim Boknam
홍빛나	Hong Pinna[빈나]	Hong Bitna

- 붙임표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즉,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게 하였고, 행정구역 단위(도, 시, 군, 구, 면..) 앞에 붙임표를 두었다. 또한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쓰도록 하였다(제3장, 2, 5, 6항).

	M-R 식	문화부식
중앙	Jung'ang	Jung-ang
도봉구	Tobong-gu	Dobong-gu
남산	Nam-san	Namsan
속리산	Songni-san	Songnisan
독도	Tokto/Tok-do	Dokdo

- 단어구분(word division)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음의 변이가 일어난다.

현행 한글의 철자법은 순수한 음성주의가 아니고 형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형태주의에 입각하여 음성주의로 번자를 하게 되면 위에서 보듯이 두 가지 이상으로 로마자 번자가 가능해진다.

	M-R 식[a 원칙; b 개선]	문화부식
국어교육의 원리	a. Kŭgŏgyoukŭi wollli	Gugeo Kyoyukeui wollli

	b. Kugō kyoyuk ũ wōlli	
꽃이나마	a. Kkoch'inama	Kochinama
	b. Kkot inama	
도와 드린다	a. Towadūrinda	Dowadurinda
	b. Towa Tūrinda	Dowa Durinda

한글문장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 시부터 19세기 말까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음절들을 붙여 사용해왔다. 한글 전용문에서 단어의 띄어쓰기를 시도한 문장은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에 처음 소개되고 있다.<sup>10)</sup> 급격히 띄어쓰기가 소개된 것은 해방 후 영어교육이 진행되면서인데, 현재의 띄어쓰기법(한글맞춤법 제 5장)은 단어 별로 붙여쓰기와 띄어쓰기가 아직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어단위에 따른 표기는 검색시 정확성을 높여 줄 수 있고, 표기의 다양한 변이를 방지하고 역으로 한글형으로의 복원을 더욱 정확하게 하게 될 것이다.

	M-R 식	문화부식
꽃입니다	Kkosimnida	Kosimnida
	Kkot inmida	
노인과 바다	Noin'gwa pada	Noingwa bada
세 역사를 위하여	Sae yoksa rŭl wihayō	Sae yoksarul wihayo
십리도 못가서	Simni to mot kasō	Simnido mokaseo
이것이 진상이다	Igōt i chinsang ida	Igosi jinsangida
한국어표준발음사전	Han'gugō p'yojun parŭm sajōn	
		Hangugeo pyojun barum sajeon

## 2. 문제점 논의

영미권에서 목록 작성시에 주제명과 지역명을 로마자로 부여할 때 우리나라(한국) 지명은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USBGN) 과 영국의 PCGN(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for British Official Use) 에서 제공하는 형식에 근거하여 작업하고 있다(UNGEGN 2000). 또한 LC, 미국무성 등 정부기관은 법적으로 BGN 이 인정하는 형식을 따르게 되어있다. 도서의 제목이 '부산의 역사와 문화' 이라면 'Busan ũi yōksa wa munhwa'로 표기되는데 목록자는 MARC21에서 책임표시사항 245 필드, 발행처·배포처 사항 260 필드에 Pusan 을

10) 상계서.

주제명부출표목-지명(651필드)에는 Pusan을, 서명의 다양한 형식 246 필드, 부출표목-비통계관련서명 740 필드에는 Busan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와 같이 두 가지 이상 다른 지역명의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전라도 '정주' 같은 경우도 Cheongju, Chŏngju, Jeongju와 같이 3가지 형식으로 표기될 수 있다).

목록작성 시 다른 문제로는 AACR(Anglo-American Cataloging Rule)2R의 규정 22.3 C1에서 비로마자르 쓰여진 이름의 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비로마자르 쓰인 이름(christian name, given name)에 대해서는(22.8) 영어로 기술된 참고정보원에 언급된 이름의 형식을 채택하고, 만약 여러 가지 영어표기 형식이 발견되면 가장 자주 나타나는 형식을 택하도록 하였다(K'ung-tzu -> Confucius). 또한 영어로마자 형식이 보이지 않거나 로마자형식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목록기관에서 언어별로 적용하는 변환표에 의해서 이름을 로마자화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표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목록자가 '이만열 문학 앨범'과 같은 도서를 편목할 때, 목록자는 영어출판물과 참고정보원에서 Yi Man-yŏl 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라도 McCune-Reischauer 방식을 따라서 Yi Man-nyŏl 아래에 저자저록을 생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규정 22.3c2에서는 성(surname) 아래 사람의 이름(명)이 비로마자르 적혀 있을때 목록기관에서 채용한 변환표를 사용하여 로마자화 한다는 규정도 이미 일반화된 자관 채용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간행하는 한국관련 출판물에는 저자의 이름과 서명을 대체로 McCune-Reischauer 형식으로 로마자화하여 출판해왔다. 목록자가 AACR2 rule 22.1 b, 22.1d2 (hyphen) 와 22.3 c1을 원칙적으로 준수한다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McCune-Reischauer 형식을 채택하여 주기입 형태로 Yi Man-nyŏl을 사용하게 된다.

문화관광부 규정(2000)의 또 다른 문제는 아직은 도서관이용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어 교육학습도구로서 문화부 규정이 최근 정부 주도로 보급되고 있는 데,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디 출신이던지 이 시스템이 아직은 친숙하지 않다. 유럽 및 북미의 대학에서 한국어사용자나 학습자들은 논문작성 및 저술 시 McCune-Reischauer식으로 기술하도록 교육을 받고, 그들이 속한 기관의 도서관에서 도서 및 정보원을 검색할 때도 McCune-Reischauer방식에 의하여 정보검색을 하게 된다. 대표적 주제 표목 도구인 LCSH(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는 이미 'Pyŏngja horan', 'Tonghak', 'Kapsin Incident', 'Chejudo Rebellion' 등과 같이 McCune Reishauer 방식을 한국관련 정보 접근을 위한 표준표기어휘로 삼아 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1)</sup> 한국어 자료 이용자의 대다수에게는 두가지 방식 모두가 자료 접근과 정보검색을 위해서 아직은 친숙치 않은 도구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문화부 규정보다 McCune- Reishauer 표

11) 김영귀, "LC Subject Headings 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44호, 상(1997.2), pp.237-272.



기방식이 배워서 사용하기 더 쉽다는 보도도 있다.<sup>12)</sup>

로마자 표기법 전환에 따른 문제로 경제적 측면도 고려되어야한다. 2000년 당시 정부는 새표기법 고시를 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이 4조원이라고 추정(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로표지판을 바꾸는데만 5,000 - 6,000억이 든다고 하였음)했지만, 실제로는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예측한 바가 있다. 단순히 도로표지판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제작업자, 여행업자, 언론인, 사업가, 외국정부, 주한미군, 항공사 등이 Kimhae에서 Gimhae 등으로 모두 바꾸는데 따른 엄청난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추산액에 도서관계에서 부가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서지통정작업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미처 합산치 못했으리라 짐작된다.

## V. 결 론

McCune-Reischauer 방식은 한글을 로마자화 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식표준으로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지명위원회(USBGN)에서 공식 채택되고, ISO와 UN의 CSGN(지명표준화 UN 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에서 권장된다는 것은 한국어를 위한 국제 표준 로마자 방식으로서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술연구기관에서 사용되도록 격려되고 미국 연방기구에서 채용해서 사용된다는 점은 사실 상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로마자화하는 국가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 연구 관련기관에서도 이를 일찍이 채택하여 사용함으로써 한국어 표기 방식에서 우선시 되어왔다. 이에 따라 OCLC, RLIN, BL, LC 등 국가기관의 목록데이터베이스에는 점차 McCune-Reischauer 방식으로 만든 목록이 증가되고 있다. McCune-Reischauer의 채용은 한국어 목록레코드, 서지통정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향이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현실점에서는 McCune-Reischauer 방식으로 목록이 만들어졌더라도 많은 경우 MARC 레코드상 700, 710, 740 필드(부출표목)에 문화관광부표기(2000) 방식을 첨부시켜 기존 방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을 보완하여,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표기방식이 공식적으로 이미 여러 번 변동을 겪어 왔다.

새표기법은 “한국인이 편리한” 표기법이라고 소개되었는데, 표기법은 싫든 좋든, 맞든 틀리든 영 어권 외국인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본다. 외국인들이 따라할 수 있게 현실 성과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새표기법은 또 한번의 일회성 표기법이 되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표기법이 세차례 이상이나 크게 뒤바뀌어 왔고,

12) 강만수, “신판 적화비 새로마자표기법이 불러올 국가적 위기,” 월간조선 2000. 9월호  
 <<http://monthly.chosun.com/>> [ 인용 2001. 2. 13].

남북한 단일 표기법 제정을 위한 회의도 1994년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언어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약속이고 보편적 관행이기 때문에 영어권 표준발음과 언어정서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이든 북한이든)한국인 중심의 주체성을 목표”로 만들고, 또 관 주도(관 주도)로 일방적 개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를 범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sup>13)</sup>도 무시하기 어렵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한국말을 하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한국의 강과 산 그리고 도시, 군과 동네를 잘 찾아가고 거리의 간판을 제대로 읽도록 해서 여행이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의 사물과 인물을 특정하여 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전달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소박한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무역, 관광 산업 등 비즈니스와 관련이 되면 그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이러한 표현방식이 시대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성장하는데 몹시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지혜로운 대처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라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을 포함하여 한국이 국제적으로 생산과 정보의 공급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지식정보를 유통해나가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 해 갈 것이다. 특히 정보 통정 업무를 기본업무로 하는 도서관 및 정보센터가 한국어자료 목록의 서지 통정 업무에 대하여 정보접근점인 표현방식을 시대에 따라 달리한다면, 국내·외 도서관계(기록정보의 서지통정을 위한 기록관 등도 마찬가지이다)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보다 사려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장만수. “신판 척화비 새로마자표기법이 불러올 국가적 위기.” 월간조선 2000. 9월호

<<http://monthly.chosun.com/>> [인용 2001. 2. 13].

고정연. “한글로마자 표기의 통일방안 모색.” 제주산업정보대학 논문집, 19(1998.7), pp.251-280. 국립국어연구원 편. 로마자표기용례사전. 서울: 문화관광부, 2001.

13) 전개논문.

14) 김명식. “확고한 의지, 광범하고 꾸준한 홍보: 한글로마자 표기법의 국제 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 새국어생활, 제10권, 4호(2000 겨울).

- 김명식. “확고한 의지, 광범하고 꾸준한 홍보: 한글로마자 표기법의 국제 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  
새국어생활, 제10권, 4호 (2000, 겨울).
- 김영귀. “LC Subject Headings 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  
학교 논문집, 제 44호 (상) (1997, 2) pp.237-272.
- 도형수. “한글로마자 표기법의 변천과정.” 계명대학교 언어연구소 언어논총, 12집(1994.12), pp.  
159-196.
- 리재철. “한글 로마자화의 서지목록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협월보, Vol.17, No 4 (1976.5).
- 박일심. “한인사서들과의 소중한 만남.” 도서관계, Vol.131, (2005, 4). pp.19-21.
- 손길영.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의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1998.12. pp.151-164.
- 정경일. “로마자표기법의 남북통일 방안” In 우리어문학회 편 남북한어문규범과 그 통일방안 서울:  
국학자료원, 2003.
-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2002 Revision. Chicago: ALA, 2002.
- G.M. McCune and E.O. Reischauer. “Tables of the McCune-Reischauer system for the  
Romanization of Korean.” In *The Transaction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 tic Society*, Vol. 29 (1939), pp.1-55.
- Lu Suping. “A Study on the Chinese Romanization standard in librari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21, No 1. 1995, pp.81-95.
- MARC21 Concise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2002 concise ed.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2002.
- UNGEGN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2000. United Nations Romanization  
Systems for Geographical Names: preliminary report on their current status.  
<[http://www.eki.ee/wgrs/v1\\_3/index.htm](http://www.eki.ee/wgrs/v1_3/index.htm)> [cited 2005.9.2]
-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2004. NGA: GNS: The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http://earth-info.nga.mil/gns/html>> [cited 2005.8.12]